

DESIGN

DESIGN

496

세계 톱 컬렉터를 디자인 갤러리 8

2019/10 ● design house

월간 <디자인> 2019년 10월호 통권 496호

1976년 10월 창간 1981년 2월 등록 등록번호 라-2521 2019년 10월 1일 발행 1985년 12월 6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발행공급처 / 디자인하우스 정가 12,000원



중국 디자이너, 지펑탄 Zhipeng Tan의 33 스텝 의자.
인간의 척추와 대퇴골 뼈를 본 떠 만든 브라스 소재의 의자. 053p

세계 톱 컬렉터를
디자인 갤러리 8

어서 와, 한국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지
우리가 사는 도시, 서울 사진전 / 현대카드 프리미엄 케이스
바우하우스 데사우 뮤지엄 개관 /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리뷰



세계 톱 컬렉터블 디자인 갤러리 8

소장 가치가 높은 디자인을 일컫는 ‘컬렉터블 디자인’의 세계가 점차 확장하고 있다. 컬렉터블 디자인은 소수의 컬렉터가 향유하는 특정 장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컬렉터블 디자인 월드를 이끌어가는 디자이너들과 그들을 노련하게 이끄는 세계 톱 컬렉터블 디자인 갤러리 8곳을 소개한다.

기획·글 김만나 기자 글 계안나 통신원

아트 퍼니처 vs 컬렉터블 디자인

한때 ‘아트 퍼니처art furniture’라는 말이 국내에서 유행했다. 이것이 가구인가, 설치 조각인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오브제’에도, 슈퍼 디자이너가 슈퍼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한 프로젝트에도 이 말을 붙였고,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모던하고 기품 있는 가구에도 이 말을 사용했다. 디자인이 본래 담고 있는 실용성을 넘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면 모두 아트 퍼니처라는 수식어를 썼다. 국내에서는 1993년 선화랑에서 열린 최병훈(전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교수)의 개인전에서 아트 퍼니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외국에서는 아트퍼니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디자인 갤러리를 중심으로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디자인은 산업 사회의 가치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디자인의 개념 또한 변화해야 하고 디자이너는 그것에 부응해야 한다.”

영화 <디터 램스>에서 디터 램스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마크 뉴슨의 록히드Lockheed

라운지 체어를 두고 ‘디자인을 비싸다고 생각하게 만든 주범’이라 일갈했지만, 지금은 디자인이 순수 미술처럼 거래되고 있고 시대별로 요구하는 디자인은 변하게 마련이다. 한때 ‘아트 퍼니처’, ‘스튜디오 퍼니처’라 불렀지만 요즘에는 ‘컬렉터블 디자인collectible design’으로 칭한다. 누가 가장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병훈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로, 정해진 용어는 없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컬렉터블 디자인 분야 또한 개념이 점차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마크 뉴슨이나 론 아라드의 디자인이 예술 작품처럼 소더비와 크리스티에서 고가로 거래되면서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관심을 가진 디자인 전문 갤러리들이 뉴욕과 런던, 파리 등의 도시에 속속 생겨났다. 이런 흐름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이다. 세계 최대의 현대미술 장터라 불리는 ‘아트 바젤’이 파생 전시인 ‘디자인 0.5 마이애미’를 2005년에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 이후 매년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 페어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일명 ‘디자인 에디션’이 예술품처럼 거래되는 ‘디자인 마이애미/



마크 뉴슨의 록히드 라운지 체어.



2015 디자인 마이애미/바젤, 카펜터스 워크숍 갤러리 부스.

바젤’은 아트 바젤 페어가 열리는 기간 동안 맞은편 전시장에서 열린다. 매년 6월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12월에는 마이애미에서 아트 페어와 디자인 페어가 한 세트처럼 짝을 이뤄 열리는 식이다. 전시 참여자는 전 세계의 디자인 갤러리 40여 곳이다. 아트



프레데리크 몰렌소트의 '시티라이트 블랙'.

바젤 페어가 그러하듯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의 총괄 디렉터 로드먼 프리맥Rodman Primack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디자인과 아트를 통합해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갤러리가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을 엄숙함에서 벗어나 격의 없게 바꾸었다고 자부한다. 마트에서 파는 디자인과 갤러리에서 파는 디자인은 각각 다르다. 쓸모 있는 가구로 기능하지만 아름답고,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점의 디자인 피스를 원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몇몇 디자인 갤러리는 미술관에서 기획할 법한 대규모 전시를 기획하기도 한다. 지난 5월 11일부터 시작한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파리를 대표하는 카펜터스 워크숍 갤러리가 선보인 <기능

장애Dysfunctional> 전이 대표적이다. 3층 규모의 팔라초 소피아 전관에 걸쳐 전 세계 디자이너 22명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했다. 카펜터스 워크숍 갤러리 창립자이자 갤러리스트인 줄리언 롬브라일Julien Lombrail은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 박람회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작품artwork을 정의하는가? 왜 작품은 기능성을 담고 있으면 안 되는가? 디자인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풍부한 베니스의 역사적 맥락이 담긴 장소에서 아트와 디자인 사이의 희미한 경계선을 걷는 흥미로운 여정이 되길 바랐다.”

세계 미술 옥션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미술관 전시로 새로운 디자인 담론을 제안하고,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에 참여해 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들은 바로 컬렉터블 디자인 갤러리를 이끄는 갤러리스트들이다. 될성싶은 디자이너를 미리 알아보는 감식안, 컬렉터에게 주는 신뢰감, 세계 디자인계의 흐름을 읽고 기획하는 날카로움을 겸비하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8개 갤러리 대표의 인터뷰와 함께 그들이 신뢰하는 디자이너들을 소개한다. 글 김만나 기자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 닐루파 디포트 <파Far> 전시 포스터.



양승진의 '블로잉' 시리즈.



토머스 바저의 '그로잉 업' 시리즈.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내는 슈퍼 디자이너 군단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

friedman benda gallery

안드레아 브란치Andrea Branzi,
웬델 캐슬Wendell Castle, 최병훈,
넨도Nendo, 요리스 라르만Joris
Laarman, 폴 콕세지Paul
Cocksedge,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 파예 투굿Faye Toogood
등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가 거느리는
슈퍼 디자이너들의 명단을 보면, 현재 뉴욕

디자인계에서 차지하는 이 곳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 창립자인 마르크 벤다Marc Benda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인 스위스 취리히에서 어머니와 함께 작은 미술 갤러리를 열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계 미술계의 심장부인 뉴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뉴욕으로 이주해 전 세계 아트 페어를 경험하던 중 극적으로 배리 프리드먼Barry Friedman을 만나게 된다. 유대인 출신의 배리 프리드먼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마르크 벤다를 자신의 갤러리로 영입한다. 이후 둘은 론 아라드와 에토레 소트사스 등의 전시를 기획하며 기존의 아트 갤러리를 새로운 디자인 플랫폼으로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5년 후인 2007년에 배리 프리드먼이 은퇴하면서 마르크 벤다가 갤러리를 인수해 둘의 성을 조합한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를 시작하게 된다. 갤러리 설립과 함께 새로운 파트너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큐레이터 출신으로서 크리스티 옥션에서 출판을 맡았던 제니퍼 올신Jennifer Olshin이 합류했다. 여느 갤러리들이 사세 확장을 위해 여러 도시에 지점을 오픈하는 것과 달리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는 뉴욕 맨해튼 첼시 파크 맞은편에 단 하나의 갤러리만 두고 있다. 갤러리의 활동은 전시 기획, 아트 페어 참여, 출판 등 크게 세 가지로 특히 출판은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의 성격을 잘 설명해준다. 전시 도록 수준이 아니라, 큐레이터와 비평가의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타센, 애슬린 등 미술 서적 출판사의 수준을 능가하는 책을 만들기로 유명하다. 안드레아 브란치의 1979년부터 2019년까지의 작업을 정리한 작품집 <Andrea Branzi: Genetic Metropolis>나 1985년부터 1994년까지 론 아라드의 작업을 '물고기와 화살'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한 <Ron Arad: Fishes & Crows> 등이 그 예다. 시대별 작업을 정리하는 출판물이 작가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작가에 대한 애정이 진하게 느껴진다. 현재는 최병훈의 작품집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속 작가가 참여하는 미술관 전시의 기획을 협력 진행하는 일 또한 이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현재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가 기획에 참여한 미술관 전시만 10개 정도다. 마이애미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에토레 소사스와 소셜 팩토리Ettore Sottsass and the Social Factory>전, 암스테르담 모코 뮤지엄Moco Museum의 <템프터Tempter>전에 참여한 마르셀 반더스의 설치 작품 등이 그 예다. 2017년에는 20세기 초부터 21세기 초까지 디자인 역사의 DNA를 보여주는 작품과 함께 현 소속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짚어내는 기획전 <DNA 10>을 열어 갤러리 오픈 1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는 2015년 최병훈 개인전으로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에 참가했고, 지난 5월 테파프 뉴욕TEFAF New York 아트 페어에서 웬델 캐슬의 개인전, 6월에는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에서 안드레아 브란치의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글 김만나 기자



2007년 뉴욕 맨해튼 첼시 파크 맞은편에 오픈한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 내부. Courtesy of Friedman Benda, Photography by Timothy Doyon

대표 마르크 벤다, 제니퍼 올신 설립 연도 2007년 주소 515 West 26th Street, New York
웹사이트 friedmanbenda.com



1, 2, 3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에타노 페세의 1980~1990년대 작품들. 순서대로 '아르카 데스크 #1' Arca Desk #1'(1990), '붉은 책장을 위한 모델' Model for Bookshelf in Red', '펠트 체어' Felt Chair'(1985). 4 2013년에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진행한 웬델 캐슬의 전시. Photography by Christopher Burke Studios.



대표 디자이너 3인

웬델 캐슬 Wendell Castle

1932년에 캔사스에서 태어난 웬델 캐슬은 2018년 1월 20일 작고하기 전까지 가구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예술로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1960년대부터 조형성과 장식성을 추구하며 소량 생산 방식으로 작업했다. 오른쪽 페이지의 작품은 2013년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새로운 환경A New Environment>에서 선보인 컬렉션 중 하나. 나무 위의 동지를 램프와 나선형의 계단으로 형상화한 가구는 실험성과 더불어 환상과 현실 사이를 오간 그의 감각을 짐작하게 한다.

가에타노 페세 Gaetano Pesce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와 오랜 인연을 맺으며 활동하고 있는 가에타노 페세. 베니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그는 조각, 회화, 영화, 디자인 등을 폭넓게 배웠고 1967년부터 뉴욕으로 옮겨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대표적인 '업Up' 소파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1980년에 '달리알Dalia' 체어, '뉴욕 선라이즈New York Sunrise' 소파 등의 히트작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살롱 94 디자인에도 합류했다.

최병훈

돌, 나무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한 최병훈의 작품에서는 자연에 대한 겸양의 태도와 절제된 형태가 드러난다. 1996년 다운타운 갤러리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6년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 개인전 등 서울, 파리, 뉴욕을 오가며 총 21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파리 장식미술관 등 해외 유명 미술관에 작품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designer interview

최병훈이 말하는 컬렉터를 디자인 세계

파리 갤러리 다운타운Galerie Downtown, 뉴욕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 등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디자인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한 최초의 한국 디자이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목조형가학과 교수를 지낸 최병훈은 퇴임 후 파주 작업실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석재 작업장을 오가며 전보다 더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그의 파주 작업실에서 컬렉터를 디자인 갤러리의 세계에 대해 들었다.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는 1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뉴욕 최고 디자인 갤러리의 입지를 다졌다.

21세기 세계 디자인사를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 작가들을 중심으로 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대륙별로 실험 정신이 강한 대표 작가들을 선택해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높이 산 컬렉터들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했다. 작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가 최고의 갤러리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2014년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진행한 <일필휘지In One Stroke>전으로 작품 세계의 전환을 맞았다. 돌을 주로 사용하고 작품 크기가 거대해졌다. 자연의 물성이 드러나는 돌의 매력을 알게 되던 차에 인도네시아산 용암석인 바잘트를 만났다. 수천 년간 산속에 숨겨져 있던 돌인데,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자연석이지만 그 안에 검은색 용암석이 들어 있다. 돌을 작업실에 갖다 두고 2년 정도 지켜보며 어떤 작품을 만들지 고민하던 차에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의 마르크 벤다가 이렇게 조언했다. 형태와 규모를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라, 그 이후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상상하던 것을 펼쳐놓으라고 말이다. 작업실에서 붓으로 수많은 획을 그리고, 하나의 획을 용암석으로 구현했다. 내 작업의 스케일이 커지고 작품 세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Houston 입구에 야외 조각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라 들었다. <일필휘지>전에서 선보였던 작품의 새로운 변형이다. 유기적인 형태의 거대한 조각 3점으로 휴스턴 미술관 신관 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미술관 현장 답사를 2017년 7월에 진행하고 이제 작품이 거의 완성되었으니 2년여에 걸친 프로젝트였다. 미술관을 대표하는 자리에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을 의뢰한 셈인데, 장르와 시대를 초월한 그들의 넓은 사고에 느낀 점이 많았다. 답사 일정 내내 동행하며 갤러리스트로서 역할을 다한 마르크 벤다의 태도 또한 우리 디자인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1996년부터 20여 년에 걸쳐 해외 전시를 10번 넘게 진행했다. 해외 디자인 시장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내가 경험한 뉴욕과 파리의 디자인 시장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파리가 아직 전통을 이어가며 프랑스 특유의 살롱 문화에 기반을 둔 디자인을 선호하는 반면, 뉴욕은 활기찬 아메리칸 드림이 저변을 형성하며 특정한 디자인 이념이나 가치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화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어느 아티스트, 디자이너라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넓은 시장이 있다.

1993년에 인사동 선화랑에서 국내 최초로 아트 퍼니처 전시를 진행했다.

1990년 홍익대학교 전임 강사가 된 다음 아트 퍼니처 과정을 만들었다. 21세기에 목공예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지 않은가. 소파를 하나 만든다고 치자. 기능성에 예술성을 더한다면 값어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본래의 사용 목적을 만족시키면서 미적 이상의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트 퍼니처의 세계이다. **해외에서는 아트 퍼니처에 대한 컬렉터의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몇 년 전 마이애미에 개인 저택을 소유한 컬렉터가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풀장 옆에 내 작품을 설치했다. 작품을 보내고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허리케인이 빈번한 곳이라 법적으로 모든 설치물을 땅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작품에 구멍을 뚫어 땅에 고정해야 하는데, 그걸 허락해달라는 내용을 보내왔다. 본인이 구입한 작품이니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다. 작품을 존중하는 마음을 경험하는 것은 작가에게 매우 힘이 된다. 갤러리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운타운 갤러리의 대표가 작업실에 온 적이 있는데, 전시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 몇 점을 골랐다. 그중 캐비닛 하나가 제작한 지 몇 년이 지나 문짝과 문짝 사이에 틈이 좀 생겼다. 이래도 괜찮겠느냐고 물으니 이것은 작품에 세월의 가치가 더해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함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가 더욱 커진 작품으로 바라본 것이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컬렉터를 디자인 갤러리가 없는 것이 아쉽다.

2007년 즈음 서미 갤러리가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는데 문을 닫은 것이 많이 아쉽다. 현재 한국에 디자인 전문 갤러리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몇몇 갤러리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컬렉터를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본다. 나는 종종 '작품이 좋으면 임자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해외 톱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적 수준이 다르다. 그렇기에 세계 어느 산간 오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작품이라 판단하면 작가들을 찾아낸다. 물건 하나를 대하더라도 끈질기게 생각하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을 생각해야 한다.

디자이너가 성장하려면 여러 분야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가장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아주 오래전에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론 아라드 전시에서 카폰 파이버라는 소재를 알게 되었다. 탄소섬유의 일종으로 레이싱카나 비행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재이다. 당시 나는 리서치해서 한국에서 이를 취급하는 곳을 찾아내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었다. 외국에서는 신소재를 개발하면 자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재료를 제공하고,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으로 론칭 쇼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은 그런 좋은 협력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디자인 갤러리들이 출판물 하거나 디자인계 담론을 만드는 미술관 전시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990년대에 이미 슈퍼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만든 가구를 갤러리에서 유통하기 시작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갤러리에서 판매하고, 이를 대량생산한 가구는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00년 전의 세계와 앞으로 열릴 100년의 세계는 같을 수가 없다.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렇다면 이 용어가 향후 100년을 더 지속할 수 있을까? 대량생산이 전제되는 디자인은 어쩌면 산업 시대의 가치다. 이제 디자인의 개념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용어가 파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영역을 점차 확대시키고, 더 가치 있는 방법론을 찾아가야 한다. 컬렉터를 디자인 갤러리들이 최근 진행하는 전시나 소속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디자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애프터이미지Afterimage 010-348' Photography by Daniel Kukla. **2** '비욘드 더 이미지Beyond the Image'(2013). 연꽃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화장대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시 후 컬렉션되었다. 최병훈은 1993년에 선화랑에서 <아트와 가구

사이Between Art and Furniture>전을 연 이래 아트 퍼니처 작업을 진행해왔다. **3** 2014년 2월 27일부터 한 달간 뉴욕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진행된 최병훈 개인전 <일필휘지In One Stroke>. 전시 후 같은 이름의 책을 발간했다.

